

중국 와인이 주류로?... 중국의 '와인굴기'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17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와인 평론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제임스 서클링이 '중국의 100대 와인'을 선정해 내놨다.

와인 애호가들마저 고개를 가웃거린다. 중국의 100대 백주라면 모를까 중국의 100대 와인이라니.

먼저 중국이 와인 생산국이었던지에 대한 의문.

예를 들어 그런거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 양조장에서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와인 생산국이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냐의 문제다.

사실 중국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 6위 생산국이다. 칠레나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규모 정도로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단 와인 생산이 가능한 기후 조건을 갖춘 곳들이 많다. 글로벌 와인 브랜드들이 향후 잠재력 있는 와인 생산지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 정부 역시 적극적이다. 중국 내 최대 와인 생산지인 닝샤 지역에서만 오는 2035년까지 와인 6억병 가량을 생산하는 것을 목



가나안 와이너리 닝샤 크레이지 팜 와인 레이블. /와인서처

표로 삼고 각종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중이다. 와인 6억병은 프랑스 보르도의 연간 생산량이다.

양적 조건 다음은 100대 와인을 경합할 정도로 중국의 와인이 질적으로 성장했는가에 대한 의문.

한국에선 중국 와인을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중국 와인은 중중국 유럽으로 수출될 정도로 맛 역시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와인 산지로 꼽히는 닝샤 와인의 경우 각종 와인 품평회 등에서 400개 이상의 상을 받았을 정도다.

제임스 서클링 테이스팅팀은 지난 1년간 거의 300종류에 달하는 중국산 와인을 시음해 이번 순위를 선정했다. 처음으로 발표된 중국의 100대 와인에서 1위로 꼽힌 곳은 바

로 가나안 와이너리(Kanaan Winery)의 대표 와인인 크레이지 팜 2019년 빈티지다. 크레이지 팜은 닝샤에서도 최고의 카버네 소비뇽 와인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성과 세련된 집중도를 보여주며, 타닌은 탄탄하지만 매끄럽다. 지금 바로 마셔도 좋지만 좀 더 숙성시켜도 될 와인이다.

2대째 가나안 와이너리를 이끌고 있는 왕 팜은 "2019년은 6월에는 비가 충분히 내린 반면 7, 8월에는 강수량이 적었다"며 "포도 자체가 좋았고, 높은 집중도도 2019 빈티지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2위는 아오윈 샹그탈라(AO YUN SHA NGRI-LA) 2017 빈티지다. 모엣 헤네시가 중국 윈난 지역에서 진출해 만들면서 탄생부터 유명세를 탔던 와인이다. 카버네 소비뇽과 카버네 프랑에 시라, 메를로, 뽀피 베르도 등을 섞어 만들었다. 신선함과 우아함, 균형감을 잘 갖춘 것은 물론 매끄러운 타닌도 특징이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 빈티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한화로 약 30~40만원선이다.

이밖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중국에 진출해 세운 와이너리 룡다이의 추산 2019년 빈티지, 헬란 칭수에 와이너리의 지아베이란 그랑 리제르바 2017년 빈티지 등으로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10대 와인에는 화이트 와인도 일부 이름을 올렸지만 품종은 대부분 샤르도네였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소크라테스의 '개똥철학' 논파

철학책으로는 드물게 국내에서 200만부 넘게 팔린 책이 있다.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진부한 수식어보다는 '철학계의 록스타'란 말이 더 잘 어울리는 하버드대 마이클 셸텔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다. 대체 정의가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걸까. 놀랍게도 정의에 대한 논의는 기원전 그리스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플라톤의 국가론에는 소크라테스가 시라쿠사 출신의 귀족, 칼케돈 출신의 소피스트 등과 함께 정의가 무엇인지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재밌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정의'가 고만고만하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빌린 것을 갚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누구는 친구에게 이익을 주고 적에게는 해악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개중에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다. 헝기 왕성한 소피스트 트라시마코스가 바로 그 주인공. 트라시마코스는 지배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정의를 어긴 범죄자로 처벌하기 때문에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곧 정의라는 주장을 펼치며 소크라테스를 도발한다.

잠자코 이야기를 들던 소크라테스는 "통치자들은 전혀 과오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냐"고 트라시마코스에게 묻는다. 트라시마코스는 "그들도



국가론 플라톤 지음/이한 편역/돌출새김

때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고 답한다. 소크라테스는 "통치자들도 실수를 하기에 법률을 만들 때 항상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법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게 정의를 수행하는 일이라면 그대의 주장과는 정반대를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상대 논리의 허점을 짚는다. 그러자 트라시마코스는 말을 바꾼다.

그는 "우리는 가끔 과오를 저지르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진정한 통치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최선의 법을 만들기 때문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 강자의 이익을 행하는 것이 정의라는 나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 박는다. 소크라테스는 트라시마코스의 개똥철학을 어떻게 논파했을까. 궁금하다면 일독을 권한다.

304쪽. 1만원. /김현정 기자 hjk1@

적절한 고통의 언어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오희승 지음/그레도북

어느 퇴근길 만원 버스에서 노약자석에 앉아 스마트폰을 하는 20대 청년을 본 적이 있다. 알미워서 눈을 계속 흘렸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다리를 찢뚝이며 버스에서 내렸다. 아차 싶었다. 누구에게나 다 나름의 사정이란 것이 있는 건데 말이다.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고통의 언어를 찾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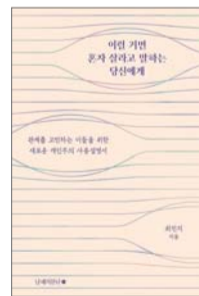


는 중입니다'를 읽어보길 바란다. 책은 샤프코-마리-투스(CMT)라는 희귀병과 퇴행성 고관절염이라는 상대적으로 흔한 병을 모두 앓고 살아야 하는 저자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가정과 사회,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불편함에 관해 써 내려간 자기 성찰적 에세이다. 244쪽. 1만5000원.

이럴 거면 혼자 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최민지 지음/남해의봄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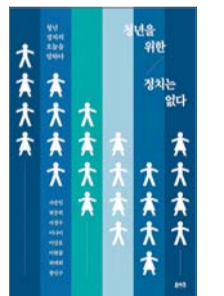
"요즘 20~30대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라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는 말을 하는 끈대들이 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엄연히 다른 데도 우리 사회는 이 둘을 동급으로 취급해 개인주의를 평가절하한다. 책은 개인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너와 내가 오롯한 한 인간으로 살기 위한 방안', '무리로부터 특정한 생각과 행동을 강요받지 않고, 소속한 집단만으로 정체성을 규정짓지 않으며, 자기 의지와 신념에 기반해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가치' 저자는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개인주의의 팽배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한다. 272쪽. 1만5000원.



청년을 위한 정치는 없다

리종일 외 7명 지음/루아크

지구촌에 '젊은 리더십' 열풍이 분다. 2020년 기준 유럽 48개국 중 23개국 정상이 30~40대에 집권에 성공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 변화에 대한 갈망은 에마누엘 마크롱(프랑스), 산나 마린(핀란드), 제바스티안 쿠르츠(오스트리아), 리오 버라드키(아일랜드) 등의 젊은 리더를 탄생시켰다. 반면 한국의 정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늙어가고 있다.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19대 53.9세, 20대 55.5세, 21대 국회는 59.4세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40세 미만 의원은 13명(전체의 4.3%)에 불과하다. 책은 한국에서 40대 대통령, 젊은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다. 268쪽. 1만6500원. /김현정 기자 hjk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바이든, 트럼프가 추진했던 핵프로그램 일부 폐기 검토 /사진 뉴시스
▲오미크론으로 베이징올림픽 위기... 티켓 판매 없고 항공편도 돌출날짜

▲美소비자물가 7%...연준 통화정책, 본격 시험대 올라
▲미·유럽 오미크론 확산 지속...미국인 대부분 감염될 것



▲카자흐서 발 묶였던 아시아나항공기, 일주일 만에 오늘 저녁 도착
▲유엔 미대사 "유엔에 北 탄도미사일 관련 추가 제재 제안" /사진 뉴시스